

세상 모든 소리, 5일간의 여정길 오르다

소리문화전당 모악당서 개막식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음악이 공존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2017 개막식이' 2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송하진 전라북도지 사는 인사말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를 주제로 전 세계 음악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라며 "세상의 모든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며 전북의 유구한 전통과 역 사,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되

송 지사 "때깔 나는 소리 주제로 한 축제 한마당 전북의 전통 · 역사에 대한 자부심 되새기는 시간 되길"

새기고 스스로 가치를 드높여 나가는 시간 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개막식에는 김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 위원장과 바벨메드뮤직 총감독 플로렌스 (프랑스), 페낭재즈페스티벌 예술감독 폴 (말레이시아), 에코뮤직캠프 예술감독 프 랭키(인도네시아) 등 해외 유수의 음악페 스티벌 관계자들과 프랑스 르몽드 기자 필 리프메, 네덜란드 월드뮤직 전문 프리랜서 기자 카벨리나, 미국 워싱턴 주정부 사이 러스 하비브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관객 등이 찬성했다.

이번 축제의 폐회식은 24일 한국소리문 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며, 골든 마우스 쇼로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정해은 기자



2017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0일 개막식을 가지기에 앞서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개막공연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리 소리를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될 것"

판소리를 비롯해 소리의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선사하는 전주세계소리축제 2017 가 20일 개막식을 갖고 닷새간 축제의 닻을 올렸다.

올해 축제는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를 주제로 160여회의 공연을 펼쳐 보인다.

개막식에 앞서 20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개막공연 기자회견에 서 김한 조직위원장은 "올해는 전통의 재해석, 판소리의 새로운 발견이 축제 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개막공연 박재천 집행위원장, 개막에 앞서 "한계 넘어 독자적 노래로 인식 가능성ㆍ발전성 찾고자 노력 개막공연, 독특하고 창의적"

김 한 조직위원장 "판소리 새로운 발견, 축제의 핵심"

'Color of Sori(때깔 나는 소리)'에는 쟁 쟁한 음악가들을 모셨고, 판소리다섯바 탕과 판소리VR(가상현실) 시연 등 다양 한 공연과 체험을 준비했다"며 "우리 소리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 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축제는 판소리가 소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의 독자적인 SONG(노래)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발전성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판소리의 명대목을 9개의 색깔로 구성한 이번 개막공연은 소리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공연들로,이는 판소리나 전통에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소리를 새롭

게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했다.

이날 자리에서 유태평양과 라티팡라르 는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북을 두리 등'의 시연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심 청가의 명대목이 프랑스 거리악단에 둘 러싸여 불리어졌다. 프랑스 관악기의 리듬이 뿜어내는 해학의 사운드에 유태 평양의 엇구수한 소리와 익살 그리고 연기력이 어우러지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태평양은 "프랑스 연주 팀이 곡의 음원을 사전에 받고 악보를 완벽하게 압기하고 와서 연습하기가 수월했다"며 "서로의 파트에 충실하며 즐거운 작업 을 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내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5개시군 선정

전주 · 정읍 · 남원 · 임실 · 고창 등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8 한옥자원활용 이간상설공연 에 대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작은 전주(전주문화재단)의 암행어사 출두야 를 비롯해 정읍(사)한옥마을사람들)의 청하신에 깃든 해어화, 남원(남원시립국악단)의 청극 열녀춘향수절가, 임실(임실 필봉농악보존회)의 춤추는 상쇠-필봉이리랑, 고창(고창농 악보존회)의 버라이어티 감성농악 갑색삼씩 이다.

이번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 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군별 심사평을 살펴보면, 전주의 경우 기획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고 작품성 또한 우수하나 공연의 창의성 부분이 약간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읍의 경우 지역 기반 스토리 발굴과 공연 콘텐츠 제작이 매우 고무적이나 접근성이 떨어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이 나왔으며, 남원의 경우 시립국악단의 운영으로 전문성과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공연장소가 광한루원 수상무대에서 춘향테마파크로 변동이 있는 민큼 이에 대한 차별화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임실의 경우 내용 및 주제, 마케팅 활용방안이 잘 구성돼 있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본 사업의 취지와 잘 맞는다는 의견과 함께 공연 외 체험프로그램 등의 차별화 방안을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고창은 풍물 창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돋보인 점, 지역 축제 등 타 프로그램과 의 연계 노력은 좋으나 계획 실현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동문그림가게 샵인샵' 운영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시민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 및 유통 · 판매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동문그림가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동문그립가게를 운영해온 재단은 이탈부터 동문예술거리내 상가 4곳과 협력하여 '동문그립가게, 샵인샵'을 운영한다. '#in#'은 가게안의 가게라는 의미로 동문예술거리 안에 있는 카페안의 동문그립가게를 일컫는다.

이번 동문그림가게의 확대 운영안은 시민들의 작품구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전주시민놀이터 외에 전시·유통공간 확보에 따른 것이다.

전주시민놀이터 1층 갤러리 공간에 위치한 동문그립 가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예술가 50여명의 작 품을 총 5차에 걸쳐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4차 전시가 진행 중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동문그림가게, 삽인샵'의 작품은 동문예술거리 내 써드웰(1호점), 스노잉(2호점), 커피로 드(3호점), 오프닝커피(4호점) 등 총 4곳의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예총 올 한해 예술문화 총결산

전주예술제, 23일까지 신시가지 비보이광장서

전주예총의 올 한해 예술문화를 총 결산하는 '제25회 전 주예술제가 21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신시가지 비보이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천년의 꿈, 밀레니엄 전주2017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번 행사에는 3천여 전주예총 회원들이 참석해 그간의 창작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예술제는 '예술의 힘,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부제 하여 21일 기쁨의 날, 22일 문화의 날, 23일 힐링의 날로 지정했다. 기쁨의 날 에는 식전공연과 개막식, 화합 및 행복 한마당을, '문화의 날'에는 어울림 예술제, 무대예술 공연을, '힐링의 날'에는 동호회원 한마당, 폐회식 및 영화상영 등을 마련하다.

예술제 기간 중 전주예총의 국악·무용·문인·미술·사 진·연극·연예·건축·영화·음악 등 10개 지회는 화려한 공연과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연예예술협회는 빅밴드 가을 음악회를, 연극협회는 이수 일과 심순애의 퓨전 창작극을, 국악협회는 소리로 통한다로 예술의 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무용협회는 춤추는 전주 신비람을 일으키다를, 음악 협회는 가을밤 클래식의 항연인 힐링콘서트를, 영화인협회 는 시대극 박열의 영화상영을, 미술인협회는 예술의 향기 전주에 스미다전을, 사진작가협회는 전주는 아시아의 문화 심장터의 사진전시회를, 문인협회에서는 고려 1018년 전주 의 시로 논의하다의 시화전을 마련했다.

심재기 회장은 "예술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통을 이루어 전주가 문화도시를 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장 **장기요**

백운농협 조합장 신용빈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신인성

진안농협 조합장 **허남규**

부귀농협 조합장 정종옥

무진장축협 조합장 송제근

성수농협 조합장 **손갑용**